

“300만년 인간史 연구 인류학은 지적 신세계”



명사의 서재

❶ 최 협 전야문화도시조성위원장

2년 전 대학교 강단을 떠난 최협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67·전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은 무등산을 벗 삼아 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16일 오후 의재 허백련 선생이 후학을 양성했던 무등산 자락 연진미술원에서 최 전 위원장을 만났다. 연진미술원에 두 평 남짓한 공간을 얻어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하는 일 없이 책을 보고, 또 책을 쓰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방 최홍종 목사는 손자인 그는 평생 인류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최 전 위원장이 인류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사춘기 시절 빠져 지냈던 지리와 역사 때문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만난 김찬삼(1926~2003)이 쓴 ‘세계 여행’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찬삼은 30여 년 동안 3차례 세계 일주와 20여 차례 테마여행을

매형 박권상 권유로 인류학 전공

‘슬픈 열대’ 읽고 문화 인류학 심취

‘서태평양의 항해자들’ 완역본 출간

한 인물이다.

“당시에는 나쁜나 아니라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고등학교 지리 교사였던 김찬삼 선생이 때루 등 남미를 여행하고 돌아와 책을 쓰고, 또 사진전을 열면서 전국을 투어 했는데 그의 전시와 강연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 60년대 초반에는 한국사회에서 남미라는 자체가 생소했으니까요.”

최 전 위원장은 ‘세계 여행’을 계기로 지리학과 역사에 대한 관심 폭을 더 넓혔다. 그리고 매형인 박권상 전 KBS 사장의 조언으로 서울대 인류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당시 박권상 전 KBS 사장은 니켈로부심으로 하버드서 공부 중이었고, 하버드에서 인류학을 접한 그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지리와 역사를 폭 넓게 아우르는 학문이 인류학”이라고 조언했다.

1965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진학한 그는 신세계를 만났다. 정치·사회·경제·역사 그리고 의학까지도 모두 인간의 한 분야를

연구하지만 인류학은 이들 모든 학문을 총체적으로 아우른다는 것이 그를 사로 잡았다. 인류학은 기록된 역사는 물론 선사시대 이전, 즉 300만 년 전 인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인간사회의 모든 문화를 연구하는 유일한 학문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최 전 위원장은 고고, 문화, 체질인류학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는 인류학 분야에서도 문화인류학에 심취했다. ‘구조주의’의 창시자인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를 만나면서부터다.

“1961년 서울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류학과가 생겼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학 전공 교수가 부족했죠. 그래서 원서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슬픈 열대’였죠.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아마존 원주민 사회에 인류 문화의 원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주민 사회를 찾았지만 그곳은 이미 서구문명으로 저주받고 있었습니다. 그 비애감이 책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일종의 문화비평서이자 인류학 대중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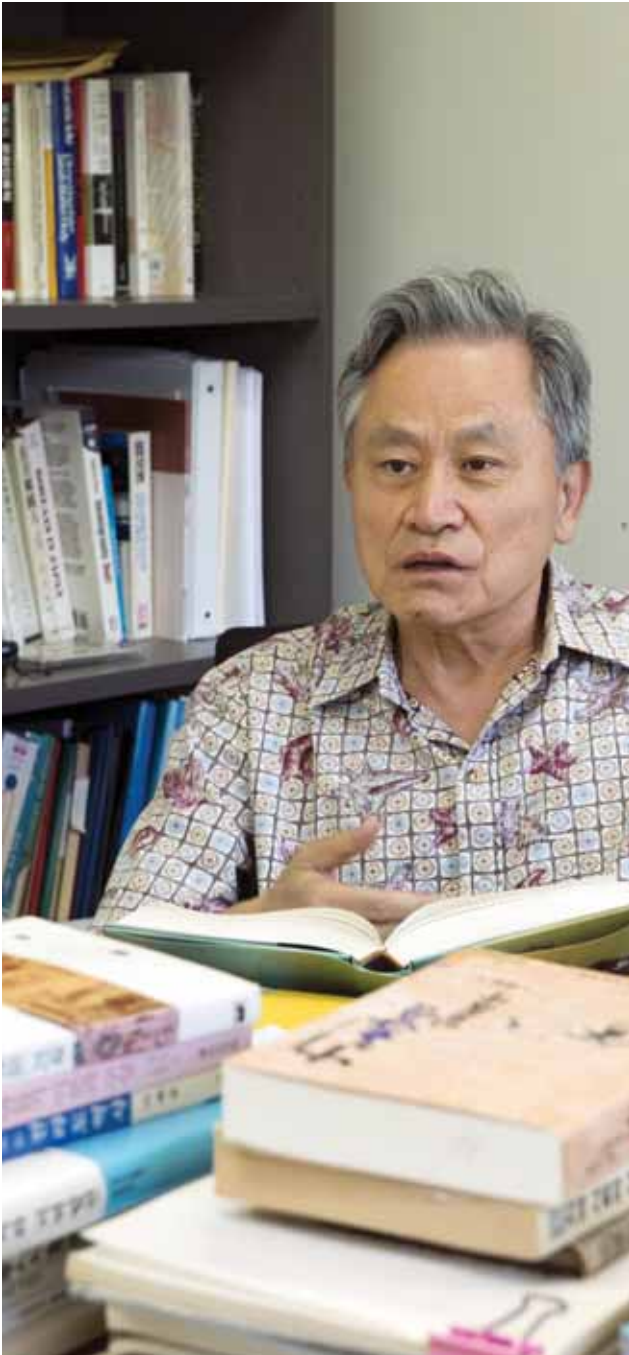
그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권했을까. 그는 초년 교수 시절 신입생들에게 소설가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가 쓴 ‘자랴골의 비가’와 ‘암태도’를 추천했다.

이 두 책은 인류학 중에서도 한국 농촌문화와 미국 농촌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즐겨 읽었던 소설이다. 한국 농촌 현실을 이해하는데 두 책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전라도 사투리가 맛깔스럽게 쓰인 소설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을 지냈던 그는 “하는 일 없이 지낸다”는 말과 달리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은퇴 후 우리나라 최초로 브로니스라브 말리노프스키의 ‘서태평양의 항해자들’ 완역본을 출간했고, 일본 인류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한 논문과 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서적과 레비 스트로스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한 책을 조만간 출간 한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은 20세기 인류학분야 최고의 고전으로 꼽힌다. 말라 노브스키가 약 100여 년 전 파푸아뉴기니의 동쪽 끝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트로브리안섬에서 2년 동안 현지조사를 통해 원주민 문화 전반을 그린 책으로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레비 스트로스의 책과 함께 그를 인류학으로 이끌었던 책으로, 번역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수렵사회는 100만~300만 년, 농업사회는 1만 년이 지속됐는데 산업사회는 300년 만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레비 스트로스는 르네상스·부르주아 휴머니즘과 함께 비문명사회의 지배를 20세기 휴머니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학자가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아시아에서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중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가공·창조하면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면 바로 그것이 대안입니다. ‘제3의 휴머니즘’이 광주에 있습니다.”



인류학자 최협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슬픈 열대’와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을 자신의 학문적 토대가 된 책이라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켄터키대 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문화인류학회회장,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일본 나오시마 지주미술관에 가면 꼭 빼먹지 말고 쟁겨봐야 할 곳이 있다. 지주미술관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이우환 미술관’이다. 한해 평균 50만 명이 찾는 미술관에는 점과 선을 바탕으로 한 이씨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 2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일본 모노파(1960년대 일본현대미술운동)의 창시자인 재일작가 이우환 화백은 ‘작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종가를 치고 있는 국제 미술계의 블루칩 작가. 그의 ‘선으로부터’(1979년

이다. 시립미술관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것도 35점이나 보유할 수 있는 건 하정웅(75)씨의 메세나 덕분이다. 영암출신 재일교포 사업가 하씨는 지난 93년 212점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평생 모은 2200여 점의 미술품(하정웅 컬렉션)을 기증했다. 이유는 고향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하지만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정웅 컬렉션은 오랫동안

하정웅과 이우환

작)는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서 17억 원에 낙찰됐고 한국작가로서는 고 백남준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최근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대구광역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우환과 친구들’이라는 미술관을 추진중이고 부산광역시 49억원을 들여 부산 시립미술관 조각공원 안에 ‘이우환 갤러리’를 건립할 예정 이다. 경상도 출신인 이 화백을 문화브랜드로 키워 관광명소로 활용하려는 속셈에서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 할 필요는 없다. 이미 광주 시립미술관(시립미술관)에는 35점의 이우환 컬렉션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지적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있을 뿐

‘햇볕’을 보지 못했다. 상당수의 작품들이 전시장이 아닌 수장고에서 잠들어 있던 탓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 작품들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시도립미술관네트워크 하정웅컬렉션특별전’(오는 21일까지)은 뜻깊은 자리다. 하정웅 컬렉션이 광주의 문화콘텐츠가 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침 이번 광주전을 계기로 오는 2015년까지 부산, 포항 등 9개도시를 순회한다고 하니 머지않아 광주의 문화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이제서야 하정웅 선생에게 조금이나마 광주의 체면이 서는 것 같아 다행이다. <편향부국장령 문화선임기자>

필리핀 역사문화 기행

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 19일 김동엽 교수 특강

(사)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는 오는 19일 오후 6시 사업회 교육실(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부산외대 김동엽 교수를 초청해 ‘필리핀 역사문화 기행’ 특강을 진행한다.

‘2013 이주민 역사문화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번 특강에서는 필리핀 노래와 춤을 체험할 수 있고, 영화도 상영된다.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광주지역 다

문화가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민들에게 모국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 이주민 역사문화캠프’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에는 한양대 장준하 교수가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우즈베크 문화유산’을 통해 본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514-0528. /김경민기자 kki@

치유의 인문학

광주트라우마센터 강좌 개설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치유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

첫 번째 강좌는 냉철하고 예저어진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교수의 ‘타자에 대한 폭력, 우리 안의 폭력’이다.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두시간동안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진행된다.

두번째 강좌는 인문학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전평론가 고미숙(9월4일), 고 평론가는 현재 인문 의역학연구소 ‘감이당’ 연구원으로 강연과 집필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임꺽정 등 고전평론서

및 누드글쓰기, ‘배운녀자’ 등 저서가 있다.

세번째 강좌는 10월23일 유지나 교수 강이다.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유 교수는 한국 영상자료원 자원위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역을 역임했다.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이사도 활동중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10일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강의가 이어진다. 정씨는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 외래 조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정신과 외래 조교수, 정혜신 정신과 의원장, 마인드프리즘 대표로 있다. ‘진실의 힘’에서 고문치유모임의 집단 상담에 참여



정혜신



박노자

강의를 들으려는 시민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healing-human@hanmail.net)로 보내거나 트라우마센터 기획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600-197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알파벳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파벳기 영어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알파벳기 고사성어 각권 8,500원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 딱봐도 국가기능시험대비

문의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